소리 내어 읽은 다음 글을 또박또박 따라 써 보세요.

內 憂 外 患

안 내 근심 우 바깥 외 걱정 환

안의 근심과 밖의 걱정거리라는 뜻으로,
안팎으로 걱정거리가 많다는 말

內 憂 外 患

내 우 외 환

조선시대 말 우리나라는 외부의 침략으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었다.

怒 發 大 發

노할 노 필 발 큰 대 필 발

화를 내고 또 크게 낸다는 뜻으로,
몹시 화가 난 상태를 일컫는 말

怒 發 大 發

노 발 대 발

네가 거짓말한 것을 아시고 아버님께서 노발대발하셨어.

한번더

위 고사성어 중 하나를 골라 짧은 글을 지어 보세요.